

# 구례군, 90억원 규모 반달가슴곰 생츄어리 공모사업 확정



환경부는 지난 2월 22일 2021년도 사육곰 및 반달가슴곰 보호시설 공모

## 마산면 황전리 2만4천㎡에 2024년까지 조성 “사람과 동물이 상생하는 새로운 모델로 구축”

사업 평가회를 개최하여 전남 구례군을 사업 지자체로 최종 선정했다. 구례군은 마산면 황전리 일원 약 2만4천㎡ 부지에 90억원을 투입하여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야외방사장, 사육장, 의료시설 등을 갖춘 반달가슴곰 생츄어리(santuari-안식처, 보호소)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2월 26일 밝혔다.

경제적 가치를 상실한 사육곰은 사회적 무관심과 농장주들의 방치로 인해 학대 수준의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을 이어가고, 동물단체에서 이런 반달가슴곰을 구조하더라도 국내 생츄어리 사업장이 없어 미국으로 보내야 하는 실정이었다. 구례군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2020년부터 지역주민과 멸종위

기종의 공존문화를 조성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사)반달가슴곰 친구들, 국립공원연구원 남부 보전센터와 함께 반달가슴곰 해설사 20명을 양성했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달가슴곰 보금자리 지원 센터를 구축했다. 김순호 군수는 “그동안의 공존문화 확산 노력과 더불어 민간 거버넌스와 기존 인프라 등이 잘 구축되어 있던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었다”며,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생츄어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사람과 동물이 상생하는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밀렵으로 인해 지리산에서 어렵게 생존하고 있던 반달가슴곰들을 확인하여 구례군에 종복원 센터를 세우고 2004년부터 280여원을 투자하여 종복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구례군은 반달가슴곰과 함께 천연기념물 제330호인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수달에 대해서도 공존문화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과 생태관광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계획이다. 구례=박진호기자

## 담양군, ‘정원전문가 양성 교육’ 수강생 모집

### 전남대학교에 위탁해 총 70시간 걸쳐 5개 교육과목 진행

담양군은 자연을 품은 생태정원 도시 건설과 생활 속 정원 문화의 확산을 위해 군민을 대상으로 정원전문가 양성교육 대상자를 선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원전문가 양성교육은 전문적인 이론과 실습교육을 통한 정

원전문인력 양성 및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 과정은 정원전문가 양성교육 지정기관인 전남대학교에 위탁해 이론 20시간, 실습 50시간 총 70시간에 걸쳐 정원 식물 이해·관리, 정원 조성방법, 정원 관리·운영 등

의 5개 교육과목으로 진행된다. 수료조건은 전체 교육과정의 80% 이상 출석과 수료시험 및 실기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하며 교육비는 1인당 80만원으로 교육생이 5만원을 부담하고 군에서 75만원을 지원한다. 모집인원은 15명으로 3일까지 담양군청 산림정원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접수 해야 하

며, 모집인원보다 접수인원이 많은 경우 추첨을 통해 선발한다. 임흥준 산림정원과장은 “이번 교육이 정원문화 확산과 생태정원도시 담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 산림정원과 정원휴양팀(061-380-2941)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담양=박종영기자



## 금성산도립공원화 나주시 ‘군부대 이전’ 용역 추진 나주시, 선도정책과제 금성산위원회 2차 회의서 밝혀

나주시가 호남 8대 명산이자 나주의 진산(鎭山)인 ‘금성산’ 도립공원 지정과 시민공원 조성을 위해 ‘군부대 이전 기초 연구용역’ 추진 등이 포함된 청사진을 구체화했다. 나주시는 25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금성산 시민공원 조성’ 선도정책과제 추진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 산하 금성산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민관공동위원회 상임위원장인 강인규 나주시장, 공동위원장인 채정기 전남대 산림자원학과 명예교수, 서재철 녹색연합 상근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 11명 전원이 참석했다. 도립공원 지정을 목표로 한 ‘금성산 시민공원’은 금성산의 생태·역사·문화 등 유·무형 자원의 체계적 발굴과 정비를 통해 온전히 시민을 위한 ‘산림 복지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나주시는 글로벌 슬로시티 인증을 비롯해 광주 군공항 이전과 연계한 산정상 공공부대 이전, 매설 지리 완전 제거, 산포비상화주로 지정 해지, 광주전과관리소 이전 등을 중장기 과제

로 선정하고 추진 중이다. 이날 금성산위원회는 금성산 도립공원 지정에 관한 타당성 조사 추진 상황과 더불어 현안 과제별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타당성 조사는 금성산이 갖춘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자원을 큰 틀에서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공원유산지구’ 등으로 분류한 후 개발 여건 분석에 중점을 두고 추진키로 했다. 중장기 과제 중 가장 먼저 지난 4월부터 육군 공병부대의 지원을 받아 추진 중인 금성산 매설 대인지리 제거 작업은 현재 전체 81%에 대한 탐사를 마치고, 지리 8발을 제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나주시는 금성산 지리 제거 작업이 순항 중인 가운데 군부대·관련시설 이전 논의 밀그림 그리기에 속도를 내기 위해 올 상반기 ‘금성산 군부대 이전’ 기초 조사 연구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기동취재본부

## 화순군, 목공예 체험 교실 운영 DIY 가구·생활소품·편백도마 만들기 체험

화순군이 목공예 활성화와 공예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2021년 목공예 체험 프로그램’ 수강생을 15일까지 모집한다. 화순군 모후산 일원에 있는 목재문화 체험장에서 열리는 목공예 체험교실에서는 체험장 상주 작가와 외부 전문 강사가 목공예 기초이론과 장비 사용법 등을 교육하고 생활가구 제작

실습을 진행한다.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요일별로 날짜를 정해 100여 회 진행되고 950여 명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DIY 가구, 생활 소품, 편백 도마 만들기를 배울 예정이며, 운영에 따른 교육비는 무료이고 재료비는 100% 참가자가 부담한다. 화순=박순철기자



## 곡성군, 신제품 단감 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 대상자 사전교육 실시

지난 2월 25일 곡성군이 2021년 신제품 단감 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 대상자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곡성군은 2020년부터 전문생산단지를 조성해 신제품 단감 원주 품종을 지역의 새로운 소득과수로 육성하고 있다. 올해까지 재배면적 30ha를 조

성하고, 2025년까지 공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교육은 사업추진절차 및 정산 서류 제출 방법, 예정지 관리, 초기 수형 구성방법 등을 안내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곡성=양혜영기자

## “몸에 좋은 ‘장성 고로쇠’ 맛도 최고”

최신 시설 도입 위생 관리 ‘반점’ ‘건강한 맛’을 자랑하는 장성 고로쇠가 제철을 맞았다. 장성군은 고로쇠 수액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임산물 산지유통센터를 개설·운영 중이다. 최신 시설 도입

으로 청결한 제조 환경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군 관계자는 “수액의 가공 단계를 자동화하고, 신식 정제 살균시설을 설치하는 등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성 고로쇠 수액은 1.5리터와 1.8리터 포장용기 두 종류로 판매된다.

“ 땅에서 나는 음식 중에 토란보다 맛있는 것은 없다 ”

허균 <도문대작>

